

혁신도시 공공기관 사회공헌·채용 늘어나나

한전·aT·한국농어촌공사 등 11개 기관 대상 바뀐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일자리 창출 강화

올해 개편된 경영평가가 첫 적용됨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분주해졌다. 사회적 가치와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등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들의 지역사회공헌과 채용 규모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평가위원을 선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들어갔다.

올해 평가 대상기관은 전국 공기업 35개와 준정부기관 88개 등 총 123개 기관이다. 빛가람혁신도시의 경우 총 11개 기관이 경영평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국전력과 한전KDN, 한전KPS다. 준정부기관은 사학연금공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다.

이들은 3~4월 현장실사를 거친 뒤 6월 경영평가 등급을 확정받게 될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 민감한 이유는 낮은 등급을 받아 부진할 경우 성과급이 삭감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기관장 해고라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올해는 개편된 경영평가를 적용받아 사회적 가치평가와 책임·윤리경영 평가를 비롯해 기관 유형별 맞춤형 평가와 참여·개발형 평가 등이 한층 강화됐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지표가 최대 배점인 7점으로 변경됐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 지표 배점이 큰 탓에 채용규모를 늘려 좋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채용비리 등 윤리경영,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한 점수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추후 경영평가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일자리 규모를 늘리고 사회공헌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경영평가 항목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

으면 점수를 채우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가치 평가기준이 확대돼 이 부분에 대한 기관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가단 체계와 구성도 개편됐다. 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기존 단일 평가단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분리했다.

주무부처, 시민단체 추천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공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비중을 높여 현장중심형으로 평가단을 구성했다.

공공기관과 평가단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경영평가 포털도 구축해 상시적인 공식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한편, 대학생 참관단이 주요 심사과정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사학연금공단, 대학 신입생 2명에 장학금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은 최근 본사 11층 회의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공단은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장학금 500만원을 나누시를 통해 선정된 학업이 우수한 대학 신입생 2명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노사가 함께하는 이웃사랑 행복나눔의 하나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이전 지역인 나누시와 상생발전을 도모, 지역 인재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종훈 이사장은 "이번 장학금 전달이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노사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학연금공단은 이전 지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나누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신입·경력직 직원 모집

총 54명 ... 25일까지 접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원장 서석진)은 13일 신입 및 경력직 직원을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채용규모 및 분야는 신입직 42명(무선국검사와 전자파 측정, 미디어 정책 개발 및 사업기획, 사무관리)과 경력직 12명(경영관리 및 정책분야) 등 54명이다.

KCA는 지난 2015년부터 국가직무능력기준(NCS) 기반으로 직무중심의 인재를 선발하고 있으며,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채용부터는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AI전형 도입에 인적성과 직무역량 등을 평가한다.

KCA 서석진 원장은 "AI전형을 통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직무중심의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KCA 누리집(http://www.kca.kr) 또는 전화(061-350-1355)로 확인할 수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에 '해녀:바다의 힘' 판매·방영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김영준)은 13일 다큐멘터리 제작사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에 국제공동제작 콘텐츠인 'HAENYEO: A FORÇA DO MAR'(해녀: 바다의 힘)을 판매·방영했다고 밝혔다.

한콘진은 '국제방송문화교류사업' 지원을 받은 해당 다큐멘터리는 방송콘텐츠진흥원에서 한류에 대한 후속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지 방송사와 국내 방송사가 공동제작하고 교차 방영을 추진했다.

'해녀: 바다의 힘'은 공동제작 방송사인 TV Cultura Brasil에서 지난 8일 자정과 11일 저녁에 걸쳐 총 2회 방영됐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에서는 지난 8일 저녁 8시 15분에 방영됐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해녀'를 집중 조명할 다큐멘터리로, 화산섬 제주도의 척박한 여건

속에서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남은 해녀의 삶과 전통 해산물 채취과정을 밀착 취재한 영상 콘텐츠다.

방영에 앞선 지난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시사회에는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 관계자, TV Cultura Brasil, 기자 등 1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사진전시회, 스크리닝, 제작과정 소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했다.

김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본부장은 "올해도 국제방송문화 교류지원 사업을 통해 국제공동제작을 지원하고 신인류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힘쓰겠다"며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13일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서산 공군비행장 지능형전력망 준공식'에서 한국전력과 공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한전, 서산 공군비행장 지능형전력망 준공식

한전 최초 공익형 E&C 위탁사업

한국전력(사장 직무대행 김시호)은 13일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서산 공군비행장 지능형전력망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노일래 한전 배전계획처장, 최익수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공군 제20전투비행단장, 공군본부 시설실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공군비행장 지능형전력망 구축사업은 지난 2016년 2월 체결한 '한국전력과 공군 간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오는 2024년까지 15개 공군비행장의 노후된 전력설비 지중화와 22.9kV로 전압 단일화, 전력설비 제어시스템 구축하는 등 한전 최초의 공익형 E&C(Engineering & Construction) 위탁사업이다.

준공식이 개최된 서산 등 4개 공군비행장의 지능형전력망은 2016년 10월부터 2년 6개월간 공사를 거쳐 올해 2월에 완료됐다. 특히 전력설비 제어시스템은 한전에서 운영중인 DAS를 공군 맞춤형으로 새롭게 개발·적용해 공군 전력설비 운영원들이 설비위치를 전력계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전력설비 제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군

은 기존에 평균 10시간 걸리던 정전 복구 시간을 3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노일래 배전계획처장은 "한전의 최신 공법과 전력신기술을 국가 안보시설에 적용한 최초의 공익형 E&C사업인 만큼 앞으로 공군의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2024년까지 남은 11개 공군비행장에 지능형전력망을 구축해 사업을 완료하고, 군 비행장에 무정전 전력공급도 시설해 군의 안정적 전력확보를 통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자금 aT, 올 50억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13일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소비자가 친환경농축산물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aT에 따르면 올해 자금 지원규모는 총 50억원 규모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aT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 또는 정책금융부(061-931-1146)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